

다니엘 K. 다르코 박사, 루가 복음, 32회차, 예루살렘의 예수, 2부, 최후의 만찬과 배신, 루가복음 22:1-53

© 2024 댄 다르코(Dan Darko)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것은 루가 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다니엘 K. 다르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32, 예루살렘의 예수, 2부, 최후의 만찬과 배신, 루가 복음 22:1-53입니다.

루가 복음에 대한 Biblical eLearning 강의 시리즈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에서 가르치는 데 시간을 보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다양한 질문에 대한 공개 토론을 통해 성전 지도자들을 만나는 것을 보았고, 21장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성전, 세상, 인자의 오심 등에 대한 미래의 사건을 예언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 강의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기 시작하고, 예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모든 것을 마무리하기 시작하십니다.

유월절이 매우 가까워지고, 더 많은 순례자들이 도시로 오고, 예루살렘이 꽤 인구가 늘어나고, 그와 그의 제자들이 유월절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제 제자들은 모르지만, 예수의 배신이 다가왔습니다. 누가는 이제 22장에서 우리의 초점을 돌려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예수가 어떻게 배신당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특정 강의에서 저는 최후의 만찬으로 이어지는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그다음 그가 배신당할 때까지 계속 추적합니다. 그러니 22장 1절에서 13

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무교절이 다가왔는데, 이는 유월절이라 불리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를 죽이는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라. 그러자 사탄이 이스가리옷이라 불리는 유다에게 들어갔는데, 그는 열두 제자 중 한 명이었다. 그는 떠나서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의논하여 그를 그들에게 어떻게 팔아 넘길 것인가를 물었다.

그리고 그들은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의하고 군중이 없는 사이에 그를 그들에게 배신할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무교절 날이 왔고, 그날 유월절 양을 희생해야 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가 먹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어디에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겠나이까? 그가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도성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이 너희를 만날 것이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가라.

그리고 집 주인에게 말하여라, 선생님이 네게 말씀하시되, 내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손님방이 어디냐? 하고 큰 다락방이 완성되었음을 보여 줄 것이다. 거기서 준비하라. 그들이 가서 보니, 그가 말씀하신 대로 되어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아마도 당신은 제가 승리의 입성 시간이 다가오자 제자들을 보내어 컬트를 찾아가게 했다는 예수의 암시를 보거나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같은 공식이 전개되는 것을 봅니다. 그는 유월절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고 두 명을 보내고, 그들이 만날 물병을 든 남자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그들이 이 남자를 만났을 때, 그들은 그를 따라가서 그가 유월절을 지낼 수 있도록 그의 객실, 즉 위층 방에 있는 큰 공간을 비워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건 어려울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언급되지 않는 루가 복음서에서 전개되는 몇 가지 일에 주목하세요. 관리들이 예수에게 다가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찾던 다른 사례들과 달리, 사용된 언어는 예수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실제로 그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매우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큰 문제입니다. 누가는 목적이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그를 죽이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유월절에 대해 생각할 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 않은 이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순례자와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에서 도시로 오면서 도시는 혼잡해질 것입니다. 요세푸스는 유월절 기간 동안 약 250만 명의 사람들이 도시로 올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고 상기시킵니다. 1세기에는 많은 숫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 번에 일어날 일입니다. 유다는 예수를 배신할 준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는 당신과 나에게 데오필루스와 마찬가지로 예수의 사역에서 투명한 것은 인간적인 노력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언급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일어나고 있는 일에는 중요한 영적 차원이 있습니다. 누가는 먼저 4장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될 때, 그가 마귀의 유혹을 받을 것이라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그를 시험할 것이고, 그는 패배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루가는 유다가 사탄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다 자신은 자신이 할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루가는 유다에게 예수를 사람들에게 배신하려는 영적인 영향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유다는 동의한다는 의미에서 공모했습니다 . 그는 지도부와 합의했고, 지도부는 그들에게서 돈을 받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는 예수를 배신하거나 그들에게 폭로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을 정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 기록을 살펴보면, 대제사장과 관리들, 유대인 관리들이 유다가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누가는 내가 방금 읽은 기록에서 유월절이 이것의 중심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하며, 당신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는 내가 당신에게만 언급한 구절에서 유월절을 여섯 번이나 강조하거나 언급합니다.

유월절은 중요합니다. 왜? 제2성전 유대교 이전의 유월절은 죽음의 천사가 지나간 그날 밤, 그들이 노예로 살던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서둘러서 빠져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유월절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언급되거나 암시되는 출애굽기 이야기를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2성전 유대교의 유배 이후 시기에 유월절은 과거를 기념하고 메시아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실 미래의 메시아적 기대를 상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글썬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 누가의 기록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그들이 유월절을 준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서 그곳으로 올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여기로 올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준비하는 동안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도록 합시다. 물류 관리자였던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은 그 장소를 준비하도록 파견되었습니다.

준비하면서, 우리는 이런 빠른 관찰을 합니다. 승리의 입성과 유월절에서 발견되는 유사점, 두 제자를 보내는 측면에서 발견되는 유사점, 그리고 일부 사람들이 컬트를 찾아가는 것은 아마도 요한과 베드로가 한 일이라고

제안하는 이유에 주목해야 합니다. 제가 읽은 기록에서 관찰할 수 있는 또 다른 것은 예수께서 누군가가 나타날 것을 미리 알 수 있는 능력, 그들이 그 사람을 만날 것이라는 능력, 그 위치가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고 그 사람도 그들의 요청에 동의하여 그들에게 유월절을 지낼 장소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루가 복음서에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을 수 없는 또 다른 사실은 루가가 유월절 등잔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의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언급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월절은 가족을 모읍니다. 20명이 모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12명에서 20명 사이라고 말할 것이고, 등잔 전체가 희생되어 유월절 식사에 사용됩니다.

램프는 죽을 것입니다. 세상의 램프는 이 특별한 유월절에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우리가 루가 복음서에서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다르게 쓴 것 중 하나는 루가 복음서에서 누가 베드로와 요한을 위한 장소를 준비하도록 인도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준비할 장소를 찾아야 할지 묻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도시로 들어오면서 유월절을 준비할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들은 그 큰 방을 확보했고, 누가는 14절에서 23절까지 계속해서 유월절 축제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14절에서, 그 시간이 되자, 그는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기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끝없이 바랐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취되기까지는 먹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는 잔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후에, “받으라, 이것을 받아서 너희끼리 나누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를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빵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리신 후에,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다. 나를 기념하여 이를 행하라. 그리고 그들이 먹은 후에, 이와 같이 잔을 주시며, 너희를 위하여 부어지는 이 잔은 내 피로 맺은 새 언약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배반하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탁자 위에 있다. 인자는 이미 정해졌지만, 그를 배반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그들은 서로에게 묻기 시작하였다. 그들 중 누가 이 일을 할 것인가.

잠깐, 제가 이것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고 몇 가지 유사점을 보여드리기 전에, 16절이나 아마도 17절에서 무언가를 살펴보세요. 예수께서 잔에 감사하실 것입니다. 그는 잔을 들고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다시 뭔가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는 잔을 들고 이 잔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그 잔은 두 번 축복을 받습니다.

20장 20절의 두 번째 언급은 그들이 먹은 후입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하면서 그 생각을 붙잡아 두세요. 유월절에 대해 생각할 때, 몇 가지 빠른 관찰을 해 봅시다.

마가가 온 저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누가는 그 저녁에 대해 그 자체로 이야기하고 싶어하지 않지만, 누가는 그들이 유월절을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왔다는 것을 정확히 지적하고 싶어합니다. 누가는 또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사도라고 불러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싶어합니다. 여기서 누가는 신중하게 단어를 선택합니다.

그는 유다가 그들을 배신할 수 있고 그들이 유다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12번째라고 부르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는 또한 이것이 그들과 함께하는 그의 마지막 식사가 될 것이며 그가 고통을 받을 것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 이전의 마지막 식사가 될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앞서 관찰한 바를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께서 잔을 두 번 축복하셨다고 언급한 점에서 매우 독특합니다.

먼저, 그는 잔을 들고 감사를 드렸고, 식사 후에 그는 다시 잔을 들고 유월절 식사 담화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두 번 언급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볼 수 없는 루카 복음서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것은 주목할 만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대리 행위입니다.

예수께서 감사를 드리시고 빵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분은 그들을 대신하여 당신을 위해 떼어진 빵에 대해 말씀하실 것이고, 그러면 그의 피가 당신을 위해 부어질 것입니다. 누가는 유월절 식사에서 전개되는 이 대리 행위에 신학적 또는 구원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배신자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할 것이라고 예언하실 것이지만, 그들을 배신하도록 세워진 이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앞서 루크는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와서 이 일을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예수의 사역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이전 강의에서 언급했듯이, 루크의 영 우주론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오고, 하나님의 왕국은 어둠의 왕국, 사탄의 왕국과 반대되고, 사탄은 하나님의 왕국의 일을 훼손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를 이용할 때, 사탄의 영이 그들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이용합니다. 이제 유월절로 돌아와서, 이 유월절 식사와 이 유월절에서의 사건은 기독교 성례전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잠깐 살펴보고 누가의 이야기를 마가와 마태의 이야기와 비교하여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 중요한 이 사건에 대한 몇 가지 관찰을 해 보겠습니다. 누가가 예수에 대해 제시하는 이 이야기를 볼 때, 저는 이미 누가가 잔을 두 번 축복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두 번 언급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점은 누가가 그 대리 행위를 언급한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주어진 내 몸이다. 마태는 이것이 내 몸이라고만 말하고 마가는 이것이 내 몸이라고 말한다. 누가는 내 피 안에서 피가 너희를 위해 쏟아진다고 말하는 유일한 사람이다.

누가는 유일하게 그 언급을 합니다. 마가와 마태에서 눈여겨볼 또 다른 것은 피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언약을 언급합니다. 누가는 내 피에 있는 새 언약을 언급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걸로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루가가 마지막 만찬에 대한 기독교 공식을 자세히 설명한 유일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의를 환기하려고 합니다. 루가가 루가 복음과 사도행전에서 포괄적인 초기 기독교 역사를 설명한 유일한 사람은 아니지만, 루가는 또한 우리 성례전의 일부가 될 강력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또한 제가 제시한 비유에서 루가가 나를 기억하여 언급하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읽으면 우리는 단지 잔과 찢어진 빵에 대해서만 읽을 수 있지만, 예수를 기억하기 위해 그렇게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전통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우리 기독교 전통은 매우, 매우 슬퍼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친교나 성찬례를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복음서를 찾을 때마다 실제로 언급하는 유일한 복음서는 누가복음입니다. 반면에 사도행전은 누가와 바울이 함께 사역을 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누가의 기록과 바울의 고린도전서 기록에서 많은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26절을 보면 누가복음과 비교해보면 누가가 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감사를 드린 후 잔을 들고 이것을 가져다가 너희끼리 나누어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내가 누가복음에서 강조한 평행선을 보면, 그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린 후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며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기념하여 이를 행하십시오.

그게 루크입니다. 바울의 비유를 살펴보죠. 그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린 후, 그것을 떼어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한 내 몸입니다.

나를 기념하여 이를 행하라. 누가와 바울 사이에 직접적인 유사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강조하는 또 다른 점은 바울이 나를 기념하여에 대해 말하고 누가도 나를 기념하여에 대해 언급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바울이 내 피에 대한 새 언약에 대해 말하고, 누가가 내 피에 대한 새 언약에 대해 말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바울은 당신을 위한 대리 행위와 당신을 위한 대리 행위를 한 번 언급했으며, 당신은 그를 기억하기 위해 이것을 해야 합니다. 누가가 여기서 하는 일은 우리가 새 언약에 대해 생각할 때, 그것이 누가의 유월절 신학을 만들고, 오늘날 우리가 성찬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형성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이제, 이 강의에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누가가 공존설, 변화설을 지지하는지 여부입니다. 누가와 바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나를 기념하여 이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념이 의미하는 바는 교파마다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요소가 예수의 진짜 몸과 진짜 피가 되는지 여부는 교파 신학의 문제입니다. 루가의 기록은 다른 복음서와 바울과 비교했을 때 이를 보여줍니다. 루가는 잔의 두 가지 축복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두 가지 언급을 지적하는 사람입니다.

마태와 마가는 그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잔에 대한 축복과 빵에 대한 축복을 언급합니다. 예수께서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고 떼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24와 직접적인 평행이 있으며, 나를 기념하여 이것을 행한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24장에 있는 바울의 기록과 마가복음 14장과 마태복음 26장에서 발견되는 것과 평행을 이룹니다. 그들은 언약을 언급하고, 누가와 바울은 새 언약을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은

우리의 기독교 달력과 기독교 신학에서 수난주간에 일어날 일을 의미 있게 기억하는 장소가 되는데, 우리를 위해 찢길 몸이 그날 저녁에 먹은 빵과 연관되고, 죄 사함을 위해 흘린 피가 마실 잔과 연관됩니다. 예수께서는 유월절에 누가의 기록에서 철학자처럼 행동하기 시작하셨는데, 철학자들처럼 심포지엄에서처럼 먹고 저녁을 먹으며 위대한 연설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사람들과 대화를 시작하셨지만, 이 질문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위대함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복음서를 읽을 때 어머니가 자녀나 제자들을 위해 높은 자리를 험상하려고 하는 것을 볼 때마다 항상 의아해합니다. 누가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생각하고, 보통은 타이밍이 맞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배신당하실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는 방금 배신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일에 쓰이게 된 자에게 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유월절 잔치에서, 분쟁이 어디에서 터져 나올지 보십시오.

24절: 그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자로 여겨질 것인가에 대한 논쟁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방인의 왕은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자들은 은인이라 불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가운데 가장 큰 자는 가장 어린 자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지도자는 섬기는 자와 같게 하라. 누가 더 크냐? 식탁에 기대앉는 자냐, 섬기는 자냐? 식탁에 기대앉는 자가 아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느냐? 곧 유월절 잔치에서 섬기는 자로서 예수 자신이냐? 너희는 내 시련 중에 나와 함께 머물러 온 자들이요, 내가 너희에게 왕국을 정해 주었으니, 너희가 내 왕국에서 내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시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할 왕좌에 앉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사도행전에서 더 많이 전개될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여기서 잠깐 관찰해 보겠습니다. 위대함에 대한 토론은 예수로부터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예수에 대한 이러한 가르침의 응답은 이 심포지엄과 같은 대화로 이어지며, 이는 마음을 찌르는 것입니다. 그럴 리도 없겠죠? 하지만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처럼 제자들은 잘못된 시기에 위대함에 대해 생각하고 싶어할 것입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깨닫고 대조적인 용어로 생각하도록 도전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세상의 지도자들은 신하들을 지배하는 왕처럼 이끌고, 신하들은 그들을 후원자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위대함과 사랑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신의 왕국에서 그는 이런 대조를 만듭니다. 더 크거나 가장 위대해지고 싶은 사람은 가장 젊어야 합니다. 잠깐 멈추어 설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더 큰 것과 대조적으로 가장 어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가 무슨 뜻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몇 가지 문화적 연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화권에서 나이는 지혜와 중요성과 관련이 있고, 아이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 어떤 문화권에서는 어린 나이에 나이 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 사실이므로, 아이들 또는 어린 사람들은 지위가 낮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가나에 있을 때 제 문화권에서는 제가 학교에 다닐 때 제가 가장 어렸다는 이유로 몇몇 친구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여기서는 '강인함'이라는 단어를 아주 온건하게 사용하지만, 제가 집에 있을 때는 그들이 제게 물을 가져오라고 부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즐깁니다. 그들은 제게 온갖 일을 부탁할 수 있고, 저는 문화적으로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어리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나이 많은 사람에게 복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더 위대해지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이 대조를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위대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본래적으로 가장 어린 종이어야 하며, 당신이 함께 있는 사람들과의 상대적인 지위에 따라 당신은 그들을 섬길 의무가 있습니다. 그는

세속적인 세상에서 더 위대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지배하지만, 그의 왕국에서는 오히려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큰 사람은 식탁에 기대앉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섬기셨던 것처럼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리더십 원칙과 왕국에서의 봉사에 대해 말씀하셨고, 그런 다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지도자로서 판단할 권한을 그들에게 부여하실 수 있었습니다. 일부 학자와 해설가들은 유다가 마티아스로 대체되고 12지파가 왕국 사역의 사명을 이끌기 위해 복귀될 때 사도행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그 행위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이 다가올지 확신할 수 없지만, 여기서 예수께서 부르시는 리더십 문제에 주목하세요. 권위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봉사적 리더십을 위해서입니다. 그는 작별 연설을 계속하는데, 여기서 베드로가 토론에 참여할 것입니다.

시몬아, 시몬 아, 그는 말했다, 보라 사탄아, 사탄이 다시 너를 요구하여 밀처럼 체질하려고 하였으나, 나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네가 돌이킬 때에 네 형제들을 굳게 하기를 기도하였노라.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가고 죽음에도 가고자 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안다고 세 번 부인하기 전에는 오늘 닭이 울지 아니하리라 하고, 내가 돈이나 배낭이나 신발도 없이 너를 보낼 때에 무엇이 부족하였느냐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무것도 없느냐.

그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돈을 돌려받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배낭도 가져가고, 칼을 가진 사람은 겹옷을 팔아서 하나를 사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피조물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며 그는 범죄자들과 함께 세어졌느니라. 나에 관하여 기록된 것은 성취되었느니라. 그리고 그는 보라, 여기 두 개의 칼이 있노라. 그리고 그들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작별 인사에서 여기서 또 다른 차원을 지적하고 싶어하십니다. 누가는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가 예수를 배반하도록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했지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사탄이 다시 베드로를 체질하여 마치 밑에서 쪽정이를 분리하듯이 그를 데려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루크는 사탄의 도구가 엄청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약화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찰하는 또 다른 것은 예수께서 기도를 통해 베드로를 대신하여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기도가 필수적이라고 거듭 강조했고,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모든 중요한 일은 기도로 시작해야 하며, 기도는 실제로 들어오고, 사람들이 기도로 그분께 부르짖어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심지어 과부와 사악한 재판관의 예에서 사람들이 기도에서 들리지 않고 계속 기도할 때에도 응답이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도까지 말입니다.

베드로는 기도로 구원받았고, 그가 기도로 구원받았을 때,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이제 이 힘을 얻었으므로 다른 제자들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확립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러한 것들을 제시하시면서 베드로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한 가지는 누가와 다른 사람들 사이의 관찰입니다.

누가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돌아서서, 그가 감옥에 같이 가겠다고 열렬히 충성을 맹세한 것은 사실은 허풍쟁이의 짓이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닭이 울기 전에 세 번이나 그를 모른다고 부인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서 그 언어를 주목하세요. 마가는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마가는 예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언급합니다. 누가는 베드로가 예수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아는 지식의 관점에서 부인하는 것을 언급합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준비하라고 명령하고,

일어나는 일이 신적으로 조종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준비하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서 방금 일어난 일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누가복음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것을 강조할 때, 사탄이 유다에게 한 일을 베드로에게 하고 싶어했기 때문에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었음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그를 구했습니다.

누가는 여러분이 세션에서 베드로가 무정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것 같다는 인식을 하기 전에, 베드로가 아니라고 말하고, 그저 그가 예수에 대한 지식을 부인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라고 말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언어를 부드럽게 합니다. 암시가 가깝기는 하지만, 그것은 직접적인 개인적 배신이 아닙니다. 그 후에 우리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까이 계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베드로를 구하기 위해 하신 기도가 요즘 매우 중요한 것으로 떠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39절을 읽었습니다. 그는 나와서,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갔고, 제자들도 그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서 돌을 던질 만큼 물러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만약 당신이 저에게서 떠나기를 원하신다면, 이 모자를 저에게서 벗겨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그를 강하게 하였고, 그는 괴로워하며 간절히 기도하였고, 그의 땀은 땅에 떨어지는 큰 피방울과 같았습니다. 그는 기도에서 일어나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이 슬픔으로 인해 잠들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왜 잠을 자느냐고 물었습니다. 일어나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고통스러운 기도를 드리는 동안 예수님은 올리브 산에 계십니다. 여기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겟세마네를

언급하지 않거나, 누가가 겐세마네를 언급하지 않고, 누가가 정원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관찰한 것은 예수께서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누가가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고 요청했다고 말하고 싶어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의 믿음이 기도 때문에 살아남았다면, 이제 그들이 기도를 하려는 자리에 이르렀으니, 그는 제자들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던져진 돌의 언어는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언어는 누가가 예수가 듣는 거리 안에 있었고 보는 거리 안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시 말해, 그가 기도하면서 괴로워했을 때, 그들은 그의 말을 들을 수 있었고, 그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계속해서 예수가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에게서 잔이 치워지기를 기도할 것이라고 말할 때.

그가 목표로 하는 것은 이것이 예수에게 강렬한 순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 제자들은 그를 보고, 제자들은 그의 말을 듣고, 제자들은 그가 참으로 매우, 매우 강렬한 시간을 겪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 입니다.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기도의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간과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루크가 이 대화에서 강조하는 다양한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 그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기도의 시간이었고, 그는 우리가 제자들과 그들의 투쟁을 생각할 때 예수님 자신이 더 많은 투쟁을 겪을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루크는 기도하는 동안 이것을 알아차리고 우리에게 언급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천사를 보내어 자신을 강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며 지쳐 계셨습니다. 잠깐 멈추어 생각해 보세요. 루가 복음은 유아기 이야기에서 천사가 많이 등장하는 복음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그리고 여기서 천사가 와서 예수를 강화하고, 그가 기도할 때,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잔이 치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천사가 강화된 후에, 누가는 그가 더욱 간절히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요점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누가는 예수가 피나 피방울을 흘리고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는 예수의 땀이 그의 몸에서 땀이 나오는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운동선수는 때때로 그것이 피방울과 같다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선지자에게서 자주 듣는 것처럼 피땀을 흘리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은 게으르기 때문에 잠을 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슬픔에 압도당했기 때문입니다.

슬픔은 극심했습니다. 누가는 그들이 슬픔 때문에 잠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다른 곳에서는 그들이 형편없는 사람들이어서 잠이 들었다고 읽습니다. 누가는 예루살렘에서 이 어려운 시기에 예수와 씨름하는 제자들의 인간성을 다루려고 노력하는 데 친절합니다.

마치 유월절 식사가 끝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시간 속에서 마무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니, 배신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다시 말해서 그들이 여전히 식탁에 기대어 앉아 먹고 있을 때,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는 동안 여전히 잠을 자고 있을 때, 무리가 왔고, 열두 제자 중 하나인 유다라는 사람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께 다가가서 입맞춤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야, 네가 그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입맞춤을 하여 인자를 배반하겠느냐?

그러면 무슨 일이 뒤따를까요? 그들은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칼로 치겠습니까? 그들 중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치고 오른쪽 귀를 잘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더 이상 그러지 말라고 하시고 그의 귀를 만져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성전의 관리들과 그를

대적하러 온 장로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칼과 몽둥이를 든 강도를 대적하듯 나왔습니까?

내가 날마다 성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는 나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거니와 지금은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라. 예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다. 때가 옳고, 때가 지금이며, 인자는 배반당할 것이다. 누가복음에서 유다는 예수에게 입맞춤을 하지 않는다.

누가복음에서 유다는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에게 입맞춤을 하라고 손짓했습니다. 예수가 그에게 입맞춤으로 배신하겠느냐고 물었을 때, 대제사장, 성전 관리, 장로들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를 체포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은 큰 지도자 집단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의 체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지 모든 유대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의 체포에 대한 폭력적인 반응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고, 심지어 들어온 사람들을 조롱하기까지 할 것입니다. 20장을 기억한다면, 저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어떤 권한으로 내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같은 집단에서 그를 대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성전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은 마치 싸울 군대를 가진 이 사람을 잡으려는 듯이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은 너무 준비가 되어 있지만, 제자들의 반응과 모든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께서 체포되었을 때 귀가 잘린 종을 고칠 것이라고 기록한 것을 주목하십시오. 하지만 요한만이 그의 기록에서 귀를 잘릴 사람이 시몬 베드로이고 귀가 잘릴 종은 마르코라고 기록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루크는 그것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친구 여러분, 이 세션을 마무리하면서 여기서 한 가지를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잔치를 하고 계셨는데, 가장 어려운 일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의 제자 중 한 명이 그를 배신할 것입니다.

그의 한 사람이 그를 배신할 것이다. 하지만 너무 멀리 가기 전에 이것을 기억하라. 루크는 또한 우리에게 우리의 인간성을 상기시킨다.

그는 우리가 사탄의 영향력에 취약하여 예수님을 포기하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온갖 일을 한다는 사실에 주의를 환기합니다. 그는 유다에게 들어가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 사탄이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는 사탄이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하기를 원했고, 그를 위해 기도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루가는 예수님 자신이 이 어려운 시기에 기도로 하느님께 힘을 구하는 위안의 장소를 보셨고, 천사가 와서 힘을 줄 정도로 필요한 힘을 구했다고 상기시켜줍니다. 수난주간에는 부활절마다 이 이야기를 읽을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너무 빨리 잊어버립니다. 이 이야기는 하느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우리는 기도 없이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없이 온갖 영향력에 노출됩니다. 베드로가 서기 위해 기도가 필요했고, 예수님이 서기 위해 기도가 필요했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기도해 예수님이 계셔서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괴로워했다면 말입니다.

저는 당신과 저도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간적 책임을 소홀히 하려는 것이 아니라, 수난주간에 들어가면서 우리 자신에게 상기시키자. 우리는 여기서 수난주간을 시작하고, 나중에 나머지를 다루는 몇 가지 강의를 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취약하고 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키자. 그리고 오직 그의 은혜로 우리는 그가 원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자신이 한 일 때문에 배신당하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이루고자 하는 것과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그를 배신하기 위해 기꺼이 내어줄 것 때문에 배신당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좋은 질문입니다. 배신당한 사람이 십자가에 가서 자신이 빛지지 않은 빛을

값고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범 죄를 값고 자신이 공모하지 않았지만 당신과 내가 유 죄인 죄를 지었을 때 당신과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용서받기 위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까지 갈 수 있고 기꺼이 갈 수 있는 만큼, 그리고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우리는 유다와 베드로를 연민과 자각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이 시리즈를 우리와 함께 따라와 주셔서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루가 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다니엘 K. 다르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32, 예루살렘의 예수, 2부, 최후의 만찬과 배신, 루가복음 22:1-53입니다.